

유라시아 대륙철도 길 열렸다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7개국 철도회사를 비롯해 코레일을 포함한 4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제휴 회원도 두고 있다.

OSJD는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 사이 국제철도협약을 맺기 위해 1956년 결성된 기구로 대륙철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운송과 관련한 제도와 운송협정을 마련하고 기술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km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구에 가입하면 철도노선이 지나는 회원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운송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추진했으나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회원이 되



‘국제철도협력기구’ 만장일치 정회원 가입 중국·시베리아 28만km 국제노선 운영 참가

려면 회원국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

코레일은 2014년 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4월 19일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린 제33차 OSJD 사장단 회의에서 정회원 가입에 도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안건이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아 무산됐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 의장직으로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북한이 반대사를 밝히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화해기류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이 전향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이어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도 해제되지 않았지만, 향후 제반 문제가 해결돼 남북 경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북 철도 연결과 이를 토대로 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도 탄력을 받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남북은 최근 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 열차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실무 분과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세종시 기획재정부 방문, 국비예산 담당 간부 및 실무진들에게 지역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윤 시장, 기재부 방문 국비활동 전개

간부·실무진들 만나 지역현안 당위성 설명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윤 시장의 기재부 방문에는 김중효 기

획조정실장, 박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교통건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윤 시장은 이날 국비예산 담당 간부 및

실무진들을 두루 접촉하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안과광학의료기계 글로벌화 지원 등 지역현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윤 시장은 이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비활동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조기철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D-5



이용섭, 시민과 소통... 조용한 선거유세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의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조용한 선거유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이용섭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시민과의 소통을 원칙으로 한 ‘선거운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1차리시장 2용섭의 12대 정책’ 발표 후 ‘주요현안 집중점검 투어’를 이어 오고 있다. 또 온라인 시민불편 접수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와 ‘스마트시민경청 유세단’을 운영하고 있다. 길거리 유세활동도 ‘조용한 선거운동’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은 그 동안 내걸었던 준비된 시장,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경제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광주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정책과 비전을 찾아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덕영 ‘부적격 인사 임명하지 않겠다’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7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역대 광주시는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다.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낙하산 인사는 물론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독점을 깨지 않으면 인

사청문제도를 도입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인사적폐를 청산할 가장 확실한 방안은 시장을 바꾸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 후보는 ‘인사청문 부적격 인사배제’와 함께 ▲재직적소 인사배제 ▲성과 상응 파격적 대우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여성 간부비율(15%)을 여성공무원 비율(33%) 만큼 상향조정 등도 제시했다.

/조기철 기자



김영록 ‘기후변화연구단지·생태식물공원 조성’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전남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규모의 ‘기후변화연구단지’와 ‘생태식물공원’을 연계해 조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아열대 기후화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 대비와 준비가 절실하다”며 “아열대 기후화의 첨병격인 전남에 기

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적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기후변화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국내의 자본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글로벌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 연구단지와 생태식물공원 등을 묶어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매호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박매호 바른미래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7일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와 함께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하고 공항기반시설을 증설해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며 “공항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과 공항과 산업·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무안국제

공항을 경유(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이행방법으로 “중국·일본·동북아 등 국제선 신규 운항수요에 대해 우선 할당하겠다”며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및 흑산공항과의 연계노선 신설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며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을 증설, 공항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장휘국·장석웅 ‘교육개혁 성공, 우리가 책임자’



장휘국·장석웅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후보는 문재인 정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대개혁 성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두 후보는 7일 광주 시교육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교육개혁의 책임자는 장휘국·장석웅 후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번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는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두 사람은 아이들의 행복과 참된 배움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켰다”며 “아이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평생 평화 통일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삶 전체로 투쟁해온 장휘국과 장석웅이 교육개혁을 이끌 책임자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초학습능력 완전히 올리겠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7일 “광주의 자존심 ‘실력광주’ 달성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완전히 올려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무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를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광주교육 실력 3UP’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초등학생 기초학력책임보장제 ▲

독서토론교육 강화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 ▲수업혁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8년간 ‘진보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광주 아이들의 ‘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공부도 잘하는 실력있는 혁신교육을 이루기 위해 학업·창의성·인성의 3가지 측면의 실력이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석규 ‘전남교육 예산 5조 시대... 고교 무상교육’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전남 교육 예산 5조원 시대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을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고 후보는 지난 6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전남 서부권 집중유세를 열고 “초·중·고 각급 학교별 맞춤형 교육을 할 것”이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문재인 정부 방침인 고교학점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입시 상시 상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또 “목포공고 등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해 산업체·지자체 취업 할당제를 확대하고 실습교육 환경을 개선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공기청정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 정부 예산을 가져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약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장 후보는 전국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와 연대, 다양한 계층의 지지선언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며, 분위기를 주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후보는 “실제 바 닥민심은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직력을 총동원해 8·9일 예정된 사전투표에서 대세를 잡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40년간 교육현장 경험을 앞세워 지역별 산업·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공약이 차별화하면서 민심의 향배가 자신에게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전남을 동부·중부·서부로 나눠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민심은 오 후보의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남도, 청사에 갤러리 개관

전남도는 7일 청사 로비에서 도민 문화공간인 ‘전남도청 갤러리’ 개관식을 갖고 ‘수목의 공간’을 첫 기획전으로 열었다.

전남도청 갤러리는 청사 로비에 약 52㎡(16평) 규모로 설치됐다. 청사 방문객에게는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미술인과 대학생들에게는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조성됐다.

전남도는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3일간 전통수목화의 이해와 현대 수목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수목의 공간’ 기획전시를 연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가 오는 9-10월 목포와 진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1면 ‘교육감 선거’ 서계속

전남교육감 선거의 현재까지 판세는 ‘2강 1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오 후보와 참교육을 지향하는 장 후보가 선두권에서 경쟁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정몽교 교육관 출신의 강점을 살려 40여년 경험을 토대로 현장경험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맹추격하고 있다.

고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공약 및 그림을 그려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효과를 입고 있는데다 장관제 전 전남교육감의 탄탄한 조직력을 흡수해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고 후보는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부동층이 우리 쪽으로 쏠리고 있다”며 “현재 공에 안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표심 공